

序文

韓國이 自來로 節義之士가 많은 것은 史乘에 있어서 有名한 事實이다。國朝에 異變이 있을때나 國權이 異民族에게 侵害를 當하였을 때이면 더욱 그러하였다。麗末 國初에 그러하였고 韓末 日本의 總行에 憤激하였을 때 또한 그러하였다。

옛 문헌에

朝鮮號多烈士凡有大危難爲士者……軌守義而不顧者是誰之所自而當時立德垂教之功視古人孰爲輕重哉今按錄稼亭文孝公生牧隱文靖公……大家長德譜不絕書世言韓山多君子信哉「驚城府院君李恒福」

이 府院君의 보인 바와 같이 韓山李氏의 오늘과 같은 繁榮은 一朝一夕에 偶然히 이루어짐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稼牧兩代의 先天的인 優越과 勤勉이 後日子孫들의 興起할만한 本源이 되었던 것이다。歷代로 文章과 節義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名賢達士가 代를 잇게 된 것이 다 이 麗末國初에 있어서 文章道德과 節義를 崇尚하게 된 것도 牧隱先生의 널리 영향을 받지 아니한 이가 거의 없었다。얼마나 仰慕할만한 일인가 現在 서울의 中心街인 壽松洞 一隅에 牧隱先生의 影像을 모시었다。六百年이라는 긴 세월을 아득 損陋됨이 없이 今日에 이르기까지 모신 것을 첫째로 遺孫들에게 敬賀하는 바이다。그러나 세상에 廣聞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道德을 敬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現代는 歐美的 風調에 無分別하게 心醉한 나머지 우리 先賢의 道德을 忘却하는 傾向이 너무나 많다。道義에 輕視 物質의 偏重奢侈의 泛濫、이 모든 것이 將來의 風化를 爲하여 매우 憂慮되는 바이다。그러나 우리의 社會의 一角에서 古風을 다시 回想하고 先祖의 道德을 反省하려는 誠熱이 보이는 것은 또한 一線의 陽脈이 아닐 수 없다。韓山古家의 遺孫들이 깊이 생각한 바 있어 古譜를 다시 編修하여 널리 세상에 알리고 더욱 젊은 世代에 先祖의 遺風과 業績을 알리려 하는 것은 참으로 敬賀해 마지않는 바이다。이 盛舉 다만 韓山一門에 囑치지 말고 그 精神이 널리 廣布되여 우리 社會風教에 도움이 되기를 心祝하는 바이다。

一九八一年 三月 日

前 忠 南 大 學 校 總 長 後 學

閔泰植書

序 文

온고지신(溫故知新) 이것은 바로 歷史를 研究하여 돌아보고 오늘을 反省하며 未來를 準備하는 것이다. 四千年의 燼爛한 이 나라 文明이 있는 反面에 受難을 겪는 悲劇으로 因하여 우리의 歷史와 우리의 文學을 한 때 외면 했든 것도 事實이다. 이제 다시 나라와 祖上을 찾고 發展을 기하려는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드는 外來의 物質文明으로 또 한고비 겪은 우리의 文學思想에 우리의 精神을 가다듬기 위하여 우리의 歷史를 살펴야 되겠고 祖上의 文學과 思想을 研究하기 위하여 결실하게 必要했던 先賢의 文集을 數百年만에 여러가지 苦難을 물리치고 刊行을 보게 되니 참으로 感激하며 그 意義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된다.至今 刊行되는 이 文獻이 우리 世代 뿐이 아닌 後世에 까지 이 나라 傳統文學思想研究에 많은 참고가 되기 바라며 刊行業務에 專心 專力한 委員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一九八一年 月 日

韓山文獻叢書 刊行 會長 李 成 珪 謹識